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완성도 높인다

전주시, 아시아 문화심장터 TF팀 구성 추진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 본격화

전주시가 올해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전주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17개 부서 27개 팀이 참여하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TF팀을 구성하고, 격주에 한번 씩 추진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는 전주 시가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원도심 100만평(약 330만㎡)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해 아시아의 문화심장으로 키워 전주가 파리나 로마와 같은 위대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시는 TF팀 운영을 통해 세부 단위사업별 경쟁발생 시에는 현안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와 경쟁사항들을 점검·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가 17개 부서에서 나뉘어 추진되는 29개 사업으로 구성된 만큼, 각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간 연계방안들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TF팀 구성과 각 부서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마스터플랜 작성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아시아 문화심장터 TF팀 구성보고회'를 열고, 아



얼어버린 전주 삼천 25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7.3도를 기록 전주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천이 꽁꽁 얼어 있다. 전주는 평균 기온이 전북의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시내 하천이 얼어붙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아 문화심장터 조성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등 전주 원도심 100만평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원도심 100만평을 역사도심 재창조 권역 55만평과 미래유산 관광벨트 45만평으로 나누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할 계획이다.

시는 전주 원도심을 아시아 문화심

장터로 만들기 위해 전주부성과 주변 지역에 대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방향과 전략 및 실천과제, 권역별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강역 재창조 복원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원장새 마을 농촌관광거점 조성 △성매매 집결지 문화재생 등 원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생 사업들을 추진

하고,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드는 미래유산 프로젝트 등도 본격화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낙후된 곳으로 인식됐던 한옥마을이 현재 전주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원도심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과 시민들의 오랜 삶의 흔적, 근현대 건축자산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콘텐츠를 재창조, 미래 전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문화산업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솔빛중, KRC FLL대회 2회 연속 세계출전권 획득

전주솔빛중학교(교장 박경철) '솔빛공방' 동아리팀이 최근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6-2017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 퍼스트레고리그 대회'에서 '로봇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인 '기계공학 디자인상(Mechanical Design Award)'을 수상 오는 5월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열리는 세계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대회는 올해 '동물 연맹(Animal allies)'이라는 주제로 크게 프로젝트 부문과 로봇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두 부문 모두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코리아로봇챔피언십(KRC)은 FEST창의공학교육협회가 지난 2010년부터 개최해온 대한민국 최대의 청소년 로봇 축제로, 13개 지역 대회와 본선을 거쳐 세계대회출전 팀을 가린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학생 또래가 써드리는 어르신 자서전 프로그램

'응답하라, 나의 청춘 두 번째 이야기'

백산중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이어 어르신 자서전을 대필해 드리는 프로젝트에 참여, '응답하라, 나의 청춘 두 번째 이야기'를 펴냈다. 장성민 군 등이 학교 17명의 학생들이 박상희 교사의 지도를 받아 배상봉 할아버지 등 어르신 8명의 삶을 이야기로 엮은 것 2백페이지 분량의 자서전은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냈다.

도교육청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학생 또래가 써드리는 어르신 자서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42팀, 중학교 63팀, 고등학교 95팀 총 2백팀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팀당 20만원씩을 지원 받아 어르신의 동의를 거친 후 들려주신 이야기를 채록하고 글로 옮기는 활동을 6개월 정도 진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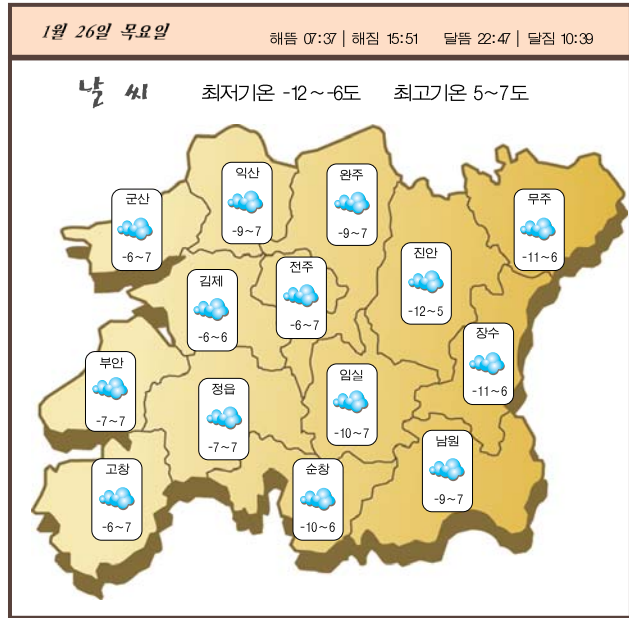
그 결과 현재 21개 학교가 어르신 자서전 60권을 발간했으며 군산고, 회현중, 완산중학교 등 20여개 학교는 내달까지 펴낼 계획. 학교별로 어르신들을 초청, 자체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크고 작은 화제를 낳았다.

김제 치문초등학교는 김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어르신 자서전 쓰기를 세대 공감 면담 프로젝트'로 진행한 결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9회 창의인성교육 현장포럼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응답하라, 나의 청춘 두 번째 이야기'는 백산중학교 1, 2, 3학년 17명의 아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로 뛰어 엮은 어르신들의 치열한 삶의 기록이다.

자서전을 쓰면서 아이들이 느낀 점을 후기로 담아 어르신들과 더불어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사드락사드락 느린 엽서쓰기' 이벤트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서 슬로시티 전주의 느림의 미학이 담긴 설맞이 '사드락사드락 느린 엽서쓰기' 이벤트를 펼친다.

'사드락사드락 느린 엽서쓰기' 이벤트는 설 명절을 맞아 28일 오전 11시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는 느린 엽서쓰기 이벤트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에게 소정의 방문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목대 관광안내소와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등 관광객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거점 2곳에 설치된 '사드락사드락 빨간·노란 느린 우체통'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엽서를

넣으면 3개월 후에 해당 주소지로 배달되는 게 특징이다.

이 우체통은 전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여행지에서 나를 찾는 편지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기 위한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제작·설치됐다.

시는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3개월 후에 편지를 받아볼 경우, 봄철을 맞아 전주를 재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발로 표현하지 못 했던 마음을 글로써 전하는 느린 엽서쓰기 행사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학교, 신입생 예비대학 수료식

전북대학교가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신입생 예비대학을 모두 마치고 28일 수료식을 가졌다. 전북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3주 동안 기초학력 증진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 BMS(Bridge Mentoring System) 예비대학' 실시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번 예비대학에서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 화학, 물리 등 기초과목을 수강하며 기초학력을 강화했다.

특히 대학 강의를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와 잠재능력, 어학능력 등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에

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예비대학에 참여한 박진솔 학생은 "입시 이후 쉬는 기간 동안 미리 대학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다"며 "새로운 친구, 교수들과 수업하며 자연스레 대학생활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료식에서 이남호 총장은 "창의적 소질을 키우기 위해 꾸준한 자기계발 등으로 합격의 꿈을 이룬 학생들이 우리대학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모병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전북대에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